< 요 약 정 보 >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0.01.05)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플러스 특별자산 자투자신탁(대출채권)[펀드코드 : BJ675]

투자 위험 등급 5등급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은 주로 **해외대출채권 및 해외대출채권 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60% 이상** 투자하여 **시장 및 개별 이자율 위험, 신용 위험, 환율 변동 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저등급 대출채권의 위험, ETF 투자위험,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 투자위험, 뱅크론 유동성 및 환매위험, 소규모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변경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플러스 특별자산 자투자신탁(대출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경쟁력 있는 변동금리 인컴 추구를 주요 목표로 하는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플러스 특별자산 모투자신탁(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하며, 모펀드 수준에서 환헤지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플러스 특별자산 모투자신탁(대출채권)"은 해외대출채권 및 해외대출채권 관련 집합투자기구에 60% 이상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이자소득 및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경쟁력 있는 변동금리 인컴 추구를 위해 해외대출채권{해외대출채권은 주로 투자등급(BBB-, S&P기준) 미만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해외에서 실행된 담보부 기업대출로써 Libor 또는 Libor floor에 가산금리(Spread)를 더하여 금리를 적용합니다} 및 해외대출채권 관련 집합투자기구에 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투자하고자 하는 해외대출채권의 가중평균 신용등급은 BB – B (S&P 기준) 수준을 목표로 또한 가중평균 듀레이션은 대략 0.25년 이내 수준을 목표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미달러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되며, 그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특별자산,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단위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납입금액의 0.7% 이내	1.030	0.400	1.36	177	290	409	664	1,4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없음	1.530	0.900	1.72	160	328	504	883	2,010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S

인(C)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080	0.450	0.73	114	233	358	628	1,42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개인연금(CP)	없음	1.330	0.700	-	139	285	438	769	1,74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Wrap(CW)	없음	0.630	-	-	65	132	204	357	8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퇴직연금(P)	없음	1.230	0.600	-	129	264	407	713	1,62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S)	없음	0.780	0.150	-	82	169	260	455	1,036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클래스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19.01.06~2020.01.05	2018.01.06~2020.01.05	2017.01.06~2020.01.05	2015.01.06~2020.01.05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17.01.04	3.63	-0.35	-0.09	-	-0.10
비교지수		6.58	4.22	4.13	-	4.17
수익률 변동성		1.81	2.70	2.32	-	2.32

(주1) 비교지수: : Credit Suisse Leveraged Loan Index(90%) + Call Rate(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특별자산)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백상훈	1972	수석	38 개	3,961억	5.06	-0.81	5.06	-0.81	19년5개월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

	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 및 개별 이자율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해외 (주로 미국) 변동금리 대출채권에, 일부는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한 구조화된 증권(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등)과 대출채권 관련 ETF 등에, 투자함으로써, 해당 대출채권과 관련된 시장이자율과, 개별 및 구조화된 그룹 대출채권의 신용상태와 담보 및 금리 결정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이자율의 변동과 함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됩니다 (단, 대체로 이자율 변동과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변동은 역의 관계입니다). 관련 시장 금리와 개별 대출채권 금리는 거시경제환경과, 개별 대출채권이 속한 산업과 대출채권 차주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채권은 고정금리 대출채권에 비해 금리의 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여전히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장이자율의 유리한 변화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가치의 상승이 고정금리 대출채권에 비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 투자신탁에서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예정인 해외 대출채권은 국외 대출자산으로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국제 경제 전망, 관련 국가의 경제 전망, 환율 변동 등 해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될 것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대출채권은 간혹 발행회사의 채무 또는 재무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증권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전환되는 주식 또는 주식관련증권이 상장된 것이라면 상장 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시장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만약 비상장 주식이나 주식관련 증권으로 전환될 경우 비상장 주식에 해당하는 위험 즉, 가격산정의 어려움, 매매의 어려움 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신용 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할 미국의 변동금리 대출채권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채권의 금리가 달라지며, 차주 신용상태의 변화는 대출채권 가치 변동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차주의 신용상태는 거시경제와 관련 산업의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변동금리 대출채권은 주로 국제기준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하한선인 BBB- 보다 훨씬 낮습니다. 대체로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정도에 비해 부도 확률이 더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만큼, 이 투자신탁의 신용위험은 해외의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비하여 훨씬 높습니다. 특히 무등급 또는 부도기업의 대출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C,D 등급까지 가능). 이러한 대출채권은 기대수익이 높은 반면, 금리 상승기에 가치 하락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일부 투자할 수 있는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은 그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성격과 구조화 특성에 따라 신용위험이 달라집니다. 이 투자신탁은 CLO의 에쿼티지분(equity tranche)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에쿼티지분 보다 상위의 경우에도 구성 채권의 신용등급 및 구조화 특성에 따라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신용위험은 대출채권의 선순위 여부, 담보 유무, 기타 발행조건에 따라 달라 지는데, 부도시의 담보물 평가 및 현금화 가능성 예측의 어려움 등과 같이 다양한 발행조건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급변하거나, 변동금리 대출채권의 수요/공급 변화에 따른 유동성 악화시에 신용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펀드 설정 초기 또는 다른 이유로 펀드의 규모가 충분치 않을 경우, 분산투자의 한계로 인하여 신용위험이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변동금리 대출채권 펀드는 ETF형태를 제외할 경우, 제도화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비하여 유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긴 환매기간이 그러한 유동성 위험의 상대적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채권의 수요/공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바, 그러할 경우 유동성 위험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대출 또는 구조화 조건,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평가 카버리지, 제도화된 거래시장의 부재 등이 유동성 위험을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대출채권이 발행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주식이나 주식관련 증권으로 전환되고 그 전환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증권이 비상장된 경우 유동성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달러화로 환전된 자금 및 달러화로 표시되는 투자금액이 원/달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헤지하기 위해서, 관련 파생상품으로 헤지목적의 거래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헤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환헤지거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완전한 환헤징 및 환헤지거래 불가에 따른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특히 일정기간 이상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큰 폭으로 변한다거나, 환매기간의 경우 및 투자신탁재산의 가격 산출 주기와 환율 결정 주기의 불일치 등의 경우에 불완전한 헤징의 가능성과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특성상, 거래상대방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저등급 대출채권의 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대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더 낮은 대출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채권은 기대수익이 높은 반면, 시장상황이 불리해질 경우 투자가치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부도 대출채권을 포함할 수 있는 저등급 대출채권은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부도시에 담보물 등의 처분이 예상보다 어려워질 경우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가치 손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대출채권의 경우, 예상치 못한 시장 급변시에 변동금리 대출채권 펀드에서 흔히 기대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 변동성 보다 단기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 관리의 일환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투자목적에 맞는 ETF에 투자하는 바, ETF가 상장폐지 되거나 유동성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상장폐지 또는 유동성 저하의 경우 이 투자신탁 전체의 단기 유동성이 악화되는 위험이 있으며, 특히 상장폐지의 경우 투자금을 현금화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일부 투자금 상실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TF는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대상 ETF는 종가와 NAV(순자산)사이의 괴리, 보수, 수수료 등 비용, 지수의 불완전 복제, 해당국의 법에 따른 ETF내 종목편입의 제한, 선물 롤오버(Rollover), ETF의 현금보유(cash drag), 통화헤지비용(currency hedging cost), 자본이득배분시 세금효과 등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에 필요할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대출채권담보부증권에 투자함에 따른 대출채권담보부증권 투자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에쿼티지분(equity tranche) 보다 상위의 등급에 투자하지만 기초자산의 성격, 신용등급, 구조화 특성에 따라 약속된 이익과 원금의 일부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급변시 유동성이 빠른 속도로 악화될 수 있으며, 신용 악화시에 기초자산의 내용에 따라 현금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긴 환매기간의 위험	긴 환매기간으로 인하여 환매기간중에 상실하는 이자수익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해당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수익자가 중도 환매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 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조기환매 위험	수익자가 환매요청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에만 투자하는 경우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절차에서 해외시장의 오퍼레이션 관행이 다양하기 때문에 결제과정에서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출채권의 경우 외부 업체에 의한 가격산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가격산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변경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플러스 특별자산 모투자신탁(대출채권)”이 최초 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모투자신탁(대출채권)”의 자투자신탁이 되는 방식으로 자동전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해지, 합병 등 처리방안을 위한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상세 투자위험은 반드시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17시 이전) 다음영업일 기준가 매입 (17시 경과 후)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17시 이전) 제12영업일 기준가 제14영업일 지급 (17 시 경과 후) 제 13 영업일 기준가 제 15 영업일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http://www.franklintempleton.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대표번호: 02-3774-0600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franklintempleton.co.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효력 발생일	2020년 01월 17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http://www.franklintempleton.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이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며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기관 (F)	1)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3)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투자자, 특정금전신탁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에 한하여 발행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 1) 집합투자신탁 종류별 설정여부는 작성기준일 시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www.franklintempleton.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franklintempleton.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franklintempleton.co.kr)